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온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김영미

부산여자대학교 아동복지교육과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on Children's Learning Readiness Mediating Effects of Paren-Child Interactions and Parental Attitudes

Yeoung-Mi Kim

Department of Child Welfare And Educare, Busan Women's College

요약 본 연구에서는 취학 전 아동을 자녀로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온정적 양육태도가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아동패널 5차(2012년)부터 7차(2014년)까지 3개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총 1,480개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연령은 5차년도 기준으로 만 5세이다. 분석도구로는 Amo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연구문제에 해당하는 경로계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자녀 상호작용,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 아동의 학습준비도를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둘째,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학습준비도를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아동의 학습준비도 간의 관계를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아동의 학습준비도 간의 관계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 아동을 위한 교육적 지원과 대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whether the parenting stress of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mediated the parent-child interaction and parenting attitude on children's learning readiness. Data was used from the 5th (2012) to 7th (2014) Korean Children's Panel, and a total of 1,480 data set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age of study participants was five years old. The Amos 23.0 program was used as an analytical tool, an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as applied to estimate the path coefficient corresponding to the research question. First, it was expected that mothers' parenting stress negatively affected the parent-child interaction, mother's parenting attitude, and children's readiness. Second, it was assumed that parent-child interaction and the mother's warm parenting attitude were positively significant to children's readiness.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ing stress of mothers and children's learning readiness was partially mediated by a positive parenting attitude. The current study supplies valuable data to establish the educational support and efficiency strategy for domestic childre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basic data in preparing a plan to more effectively provide educational support for domestic children.

Keywords : Parenting Stress, Parent-Child Interaction, Affective Parenting, Learning Readiness, Mediated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Yeoung-mi Kim(Busan Women's College)

email: okok2536@daum.net

Received September 2, 2019

Accepted December 6, 2019

Revised October 4, 2019

Published December 31,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취학 전 아동을 둔 부모들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성공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클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학습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아동은 구조화된 교과과정 안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학업성적을 얻기 어렵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1]. 초등학교 입학으로 인해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서 적절히 적응하는지의 여부가 앞으로 이어지는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아동이 취학 전 시기부터 적절하게 학습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학습준비도는 초등학교 학습에서 요구되는 기초지식이나 태도, 기술 등의 습득 정도로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초등학교교육과정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의된다[2]. 또한 아동의 행동과 인지발달 및 교실에서의 적응에 관한 폭 넓은 개념으로도 해석되기도 한다[3]. 학습준비도에 대한 초기 관점은 대체로 학업성취를 위한 문제해결력과 인지적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인지적 측면, 사회정서적 측면, 태도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4, 5]. 학습준비가 잘 되어 있는 아동은 또래나 교사와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학업성취도 수준이 우수한 반면[6, 7] 학습준비도가 낮은 아동은 지속적인 학업문제를 나타내고 [8] 또래 및 교사와 충돌하는 경향이 있다[9, 10]. 이처럼 아동의 학습준비도는 초기학습에서의 성공이 이후의 학습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아동은 주양육자인 어머니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자녀의 학습준비도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다[11]. 아동이 처음으로 접하는 사회적 대상인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아동의 행동 발달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12] 부모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와 자녀 간의 부모-자녀 상호작용 경험을 간과하기 어렵다 [13]. 상호작용은 사전적 의미로 '둘이나 그 이상의 사물, 현상이 작용하여 원인으로 되고 결과로 되는 일'로 정의된다. 이를 인간에게 적용하면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행위의 주체와 객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14].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은 자녀의 의식주 해결과 정서적 유대감을 토대로 하는 친밀감이나 사랑 등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바람직한 부모-

자녀 상호작용은 영유아시기부터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밑바탕이 되므로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한다[15]. 부모가 자녀와 양질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방식은 자녀의 교육에도 효과적이다[16]. 어머니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이 아동의 학습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13,17]에서도 어머니와 자녀가 보내는 양질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더불어 취학 전 아동의 학습준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있다. 양육태도란 어휘 그대로 부모나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할 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로 정의된다[18].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서적, 언어적, 사회적, 성격적, 지적 측면 등의 다양한 영역을 발달시키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19]. 특히 본 연구에서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자녀의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부모의 허용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창의성을 높인다[20, 21]. 또한 부모가 자녀를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돌보고 자녀의 자율적인 태도와 행동을 지지하며 양육할 때 자녀는 스스로를 신뢰하며 강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22] 이렇게 건강한 내면을 가진 아동은 학업에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게 된다[23]. 부모의 양육태도가 이처럼 아동의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선행연구에서도 실증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김지자, 김인아와 안현미[11]는 아동이 자신의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이며 자율적이고 성취 지향적인 방식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게 됨을 보고하였다. 이명란[21]은 만 4세와 5세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결과,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학습능력을 낮추는 반면 애정적 양육태도는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 특히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자녀는 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냉정함이나 무관심이 아닌 애정과 친밀함으로 자신을 양육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자녀는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높아진다[20, 24]. 즉 학업에 대한 준비 수준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아동의 주도적인 학습력에 양육태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한 이명란[21]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통제적이거나 자율적, 거부적인 양육태도에 비해 아동의 학습에 가장 큰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아동의 학교생활 준비에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살펴본 도미진과 김주후[25]연구에서도 자녀를 따뜻하게 돌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아동의 학습능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습준비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다.

취학 전 아동의 학습준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 양육 스트레스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육 스트레스란 자녀 양육으로 초래되는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피로를 경험하고 자신의 정체감을 유지에 불만족스러워하며 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심리적 압박을 의미한다[26].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데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일시적으로 받는 근심이나 걱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적된 일상적인 스트레스이다[27].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의 학습준비도를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윤정순[28]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특히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에서 학습에 대한 기대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자녀의 학교준비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습준비도가 학교준비도의 큰 영역을 차지하는 개념임을 고려하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자녀의 학습준비 수준이 낮아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윤정순, 이미현, 이유미[29]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양육 스트레스가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학습에 관한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의 학교준비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송연희[30]의 연구에서는 양육 스트레스 중에서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이 만 5세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침을 밝혀 부모가 됨으로써 경험하는 우울감이나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보다 어머니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이면에는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우고 싶어하는 기대가 존재한다[31]. 그러나 지나친 기대는 자녀의 학습에 역효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32].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국내외의 여러 연구[33, 34, 35]에서 입증하였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와의 상호작용 뿐만 아니라 가족

전반에 걸친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인인 만큼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 한다[36].

과거부터 주의 깊게 다루어져 왔던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질을 결정지을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소개되어 왔다. 부모가 양육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면 자녀를 가혹하게 대하고 잦은 처벌을 가하며 온화함이 부족하게 되고 아동을 방치할 가능성이 높다[37]. 또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저해하는 부정적이고 강압적인 양육태도를 자주 표출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37]. 문영경[38]의 연구에서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행동을 적게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김정민과 한정원[37]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를 자주 통제하려고 하며 온정적인 모습을 적게 드러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온정적 양육태도를 매개로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아동의 학습준비에 이르는 요인의 양상을 횡단자료를 이용한 분석으로 단편적인 면만을 확인하는 데 그쳤으나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여 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심리적 요인과 태도적 요인, 행동적 요인 모두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다음 해의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영향을 받은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그 다음 해의 아동의 학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입체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가정에서 학교로 생활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취학 전 아동에게 학습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아동의 학습은 이후 시기의 학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취학 전 아동의 학습준비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부모-자녀 상호작용, 온정적 양육태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국내 아동을 위한 교육적 지원과 대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와 아동인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아동의 원활한 학습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온정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연구문제 4.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연구문제 5.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연구문제 6.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아동의 학습준비도 간의 관계를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매개할 것인가?
- 연구문제 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아동의 학습준비도 간의 관계를 온정적 양육태도가 매개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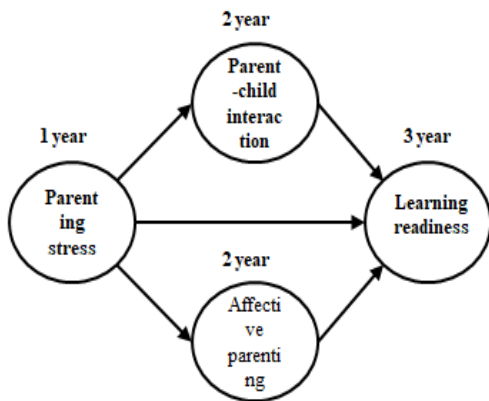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PSKC) 5차년도(2012년), 6차년도(2013년), 7차년도(2014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국내 아동의 특성, 부모의 특성, 가족의 특성 등을 조사하는 패널을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패널의 대상은 2008

년에 출생한 신생아를 자녀로 두고 있는 국내 2,078가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를 제외한 1,480개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설문 응답자는 아동의 어머니이며 아동의 연령은 5차년도(2012년)를 기준으로 만 5세이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아동의 성별은 남성 758명(51.2%), 여성 722명(48.8%)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서울권 189명(12.8%), 경기권 466명(31.5%), 대전·충청·강원권 207명(14.0%), 대구·경북권 173명(11.7%), 부산·울산·경남권 261명(17.6%), 광주·전라권 184명(1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결혼 상태는 미혼 2명(0.1%), 초혼 1,449명(98.3%), 재혼 14명(0.9%), 사별 2명(0.1%), 이혼 5명(0.3%), 별거 2명(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최종 학력은 고졸 이하 430명(29.3%), 전문대 졸업 562명(27.6%), 4년제 졸업 562명(38.3%), 대학원 졸업 71명(4.8%)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Respondents statistical characteristic

Variable		N	(%)	Variable		N	%
Sex of child	Male	758	51.2	Mother's marital status	Single	2	0.1
	Female	722	48.8		First marriage	1449	98.3
Region	Seoul metropolitan area	189	12.8		Digamy	14	0.9
	Gyeongin	466	31.5		Bereavement	2	0.1
	Daejeon, Chungcheong-do, Gangwon-do	207	14.0		Divorce	5	0.3
	Deagu, Gyeongbuk	173	11.7		Separation	2	0.1
	Busan, Ulsan, Gyeongnam	261	17.6	Mother's final education	Below High School	430	29.3
	Gwangju, Jeolla	184	12.4		College Graduate	405	27.6
					4-year University Graduate	562	38.3
				Graduate School	71	4.8	

2.2 측정도구

2.2.1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기현과 강희경[40]이 개발하고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단일요인이며 Likert 5점

(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총 11개 문항이다. 문항의 예시로는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쳐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등이 있다. 점수의 범위는 11~55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정민과 한정원[39]의 연구에서 문항내적합치도 계수는 .8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2.2.2 부모-자녀 상호작용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ECLS-K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 Kindergarten Cohort)에서 제작한 HEQ(Home Environment, Activities, Cognitive Stimulation) 중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묻는 문항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안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단일요인이며 Likert 4점(1점: 전혀 하지 않음~4점: 매일함)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총 10개 문항이다. 문항의 예시로는 '아이와 함께 스포츠 또는 운동을 한다', '아이와 함께 무엇을 만들거나 조립용 완구를 가지고 논다' 등이 있다. 점수의 범위는 4~40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빈도가 많음을 의미한다. 최은정과 김은향[39]의 연구에서 문항내적합치도 계수는 .9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4로 나타났다.

2.2.3 온정적 양육태도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과 권희경[42]이 개발하고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 및 보완한 자녀 양육방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단일요인이며 Likert 5점(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총 6개 문항이다. 문항의 예시로는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등이 있다. 점수의 범위는 6~30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정민과 한정원[39]의 연구에서 문항내적합치도 계수는 .8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4로 나타났다.

2.2.4 학습준비도

아동의 학습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Murphey와

Burns[43]가 개발하고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 및 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 정서 발달 6문항, 학습에 대한 태도 8문항, 의사소통 3문항,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 5문항으로 총 22문항이다. 모든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있고 문항의 예시로는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다', '욕구, 필요한 것, 생각들을 말로 표현한다' 등이 있다. 점수의 범위는 22~88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습준비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진화와 조인경[17]의 연구에서 문항내적합치도 계수는 .74~.8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사회 정서 발달 .75, 학습에 대한 태도 .86, 의사소통 .85,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 .81, 전체 .93으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Amo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항내적합치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분석 자료가 모형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였다. 다섯째,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직접효과를 검증하였고 개별 간접경로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의 일반적 경향성과 정규분포 가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고 Table 1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변인의 왜도 범위는 -1.32~.39, 첨도 범위는 -.05~3.11로 나타났다. 왜도의 절대값이 3보다 작고 첨도는 10보다 작으므로 모든 변인이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함을 알 수 있었다[44].

Table 2. Technical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Path	Mean	SD	Skewness	Kurtosis
Parenting stress	2.74	.66	.07	-.05
Parent-child interaction	2.29	.51	.39	.24
Affective parenting	3.68	.53	-.07	.30
Learning readiness	3.53	.36	-.85	.88
Social emotion development	3.48	.40	-.72	.62
Attitude toward learning	3.48	.41	-.68	.15
Communication	3.60	.48	-.94	.44
Cognitive development & General knowledge	3.64	.40	-1.32	3.11

다음으로 주요 변인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자녀 상호작용($r=-.23, p<.001$), 온정적 양육태도($r=-.38, p<.001$), 학습준비도($r=-.17, p<.001$)와 부적상관이 있고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온정적 양육태도($r=.55, p<.001$), 학습준비도($r=.22, p<.001$)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정적 양육태도는 학습준비도($r=.23, p<.001$)와 정적상관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of major variables

Path	Parenting stress	Parent-child interaction	Affective parenting
Parenting stress	1		
Parent-child interaction	-.23***	1	
Affective parenting	-.38***	.55***	1
Learning readiness	-.17***	.22***	.23***

*** $p <.001$

3.2 측정모형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45]이 제안한 문항 꾸러미(Item Parcel)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여러 문항을 결합하여 측정변인을 제작하여 분석에 활용하는데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46]. 개별문항을 직접 활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비정규성 문제를 줄이고 측정변인이 몇 문항의 평균이나 합으로 구성되므로 신뢰도가 상승한다. 또한 추정해야 할 모수가 감소하여 측정오차가 감소하고 모형의 적합도가 개선된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 요인인 양육 스트레스, 부모-자녀 상호작용, 온정적 양육

태도 변인에 문항 꾸러미 방법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각 변인에서 하나의 요인으로 고정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요인 부하량을 기준으로 각 문항의 순위를 매겨 요인 부하량이 가장 높은 문항과 낮은 문항을 순차적으로 묶는 방식을 적용하여 모든 문항 꾸러미가 잠재변인에 대해 비슷한 요인 부하량을 지니도록 제작하였다. 양육 스트레스와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꾸러미는 3개, 온정적 양육태도의 꾸러미는 2개를 생성하였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적합도 지수는 NFI, TLI, CFI, RMSEA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NFI[47], TLI[48], CFI[49]는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RMSEA[50]는 .05미만이면 좋은 적합도, .08미만이면 괜찮은 적합도, .10미만이면 보통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판단한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 적합도 지수는 NFI=.975, TLI=.972, CFI=.979, RMSEA=.053로 양호하게 나타나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측정모형의 요인 부하량(표준화 회귀계수)을 Table 4에 제시하였다. 양육 스트레스는 .86~.90,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71~.86, 온정적 양육태도는 .77~.90, 학습준비도는 .71~.87로 모든 요인 부하량이 .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51] 12개의 측정변인으로 4개의 잠재변인을 구성한 측정모형이 자료에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Table 4. Parameter estimates of the measurement model

	Path	B	SE	β	t
Parenting stress	->Stress1	1.00		.86	
	->Stress2	.94	.02	.86	41.26***
	->Stress3	1.09	.03	.90	42.87***
Parent-child interaction	->Interaction1	1.00		.86	
	->Interaction2	.80	.03	.71	27.92***
	->Interaction3	.91	.03	.78	30.24***
Affective parenting	->Affective parenting1	1.00		.90	
	->Affective parenting2	.74	.03	.77	30.24***
Learning readiness	->Social emotion development	1.00		.71	
	-> Attitude toward learning	1.27	.04	.87	30.55***
	->Communication	1.38	.05	.82	29.19***
	->Cognitive development & General knowledge	1.14	.04	.81	28.87***

*** $p <.001$

4.3 연구모형 검증

양육 스트레스가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온정적 양육태도가 매개하는 모형의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를 Table 5와 Figure 2에 제시하였다. 양육 스트레스는 1년차 변인,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온정적 양육태도는 2년차 변인, 학습준비도는 3년차 변인이다. 먼저, 직접효과를 살펴보면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자녀 상호작용($\beta=-.29, p<.001$), 학습준비도($\beta=-.07, p<.05$), 온정적 양육태도($\beta=-.45, p<.001$)를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다음 해의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온정적 양육태도와 또 그 다음 해의 학습준비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모-자녀 상호작용($\beta=.17, p<.001$)과 온정적 양육태도($\beta=.15, p<.001$)는 학습준비도를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온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다음해의 학습준비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5. Path coefficient of the structural model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arenting stress->Parent-child interaction	-.29***	-	-.29***
Parenting stress->Learning readiness	-.07*	-.12***	-.19**
Parenting stress->Affective parenting	-.45***	-	-.45***
Parent-child interaction->Learning readiness	.17***	-	.17***
Affective parenting->Learning readiness	.15***	-	.15***

* $p <.05$, ** $p <.01$, *** $p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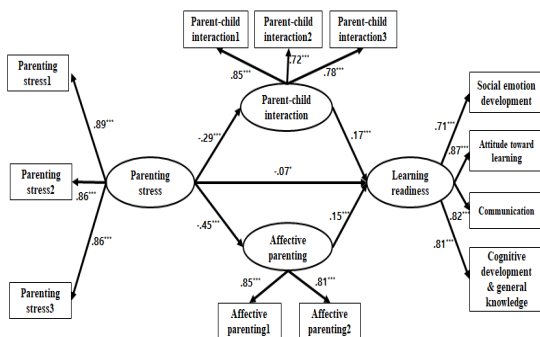


Fig 2. Path coefficient of the structural model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다음으로 개별 간접경로를 분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1년차의 양육 스트레스는 2년차의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거쳐 3년차의 학습준비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5, p<.001$). 또한 1년차의 양육 스트레스는 2년차의 온정적 양육태도를 거쳐 3년차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7, p<.001$). 앞선 분석에서 양육 스트레스는 학습준비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양육 스트레스는 학습준비도에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 영향 모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온정적 스트레스가 양육 스트레스와 학습준비도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6. Individual indirect path effect analysis

Path	β	SE	Z
Parenting stress->Parent-child interaction->Learning readiness	-.05	.00	-4.85***
Parenting stress->Affective parenting->Learning readiness	-.07	.01	-4.11***

*** $p <.001$

4. 논의

초등학교 취학 전에 있는 아동이 입학 이후에 적절히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중요하다. 초등학교 생활 초기에 학업이나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이 나타나면 그 이후의 시기에서도 성공적인 학업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학 전 아동을 둔 국내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온정적 양육태도가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아동의 학습준비도를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이 만 6세 때 어머니와 많은 상호작용을 했을수록 이듬해인 만 7세 때의 학습준비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 높을수록 아동의 학습준비가 높아짐을 보고한 권소정과 이강이[13]의 연구, 이진화와 조인경[1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부모가 자녀와 보내는 양질의 시간은 아동이 하는 행동의 허용성을 높여 스스로의 일을 자신

있게 해낼 수 있게 하므로[52] 자녀가 학습준비를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결과는 취학 후 아동이 학습을 적절히 준비하는데 취학 전의 어머니와 아동과의 원만하고 밀접한 관계가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학습준비도를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 6세 시기의 아동을 온정적으로 양육한 어머니의 태도는 다음 해에 아동의 학습준비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주도 학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힌 이명란[21]의 연구,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보고한 도미진, 김주후[25]의 연구와 맥을 함께 한다. 어머니의 따뜻한 자녀 양육방식은 자녀의 언어적 능력과 지적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19]. 자녀가 입학 무렵의 시기부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방식이 입학 이후의 학습준비 수준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양육방식이 조기에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자녀 상호작용,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해년도의 양육 스트레스가 이듬해의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온정적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그 다음 해의 아동의 학습준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악화시킴을 확인한 연구[33, 34, 35], 양육 스트레스가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를 낮추는 것을 보고한 연구[38, 39], 양육 스트레스와 아동의 학교준비도 간의 부적 관계를 탐색한 연구[30, 31, 32]와 일맥상통한다. 이는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 스트레스는 1년 가량의 시간이 흐른 뒤에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빈도를 낮추고 자녀를 친밀한 방식으로 대하는 행동을 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가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초등학교에 취학 할 때 자녀의 또래관계나 교사가 주도하는 활동에 적절한 참여를 방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어머니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아동의 학습준비도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 스트레스가 부모-자녀 상호작용[33, 34, 35]과 온정적 양육태도[38, 39] 및 학교준비도[28, 29, 30]를 부정적으로 예측함을 보고한 연구, 부모-자녀 상호

작용이 학습준비를 높일 수 있음을 규명한 연구[13, 17], 온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교준비도[21, 25]의 촉진 요인임을 확인한 연구[21, 25]와 일치한다. 이는 첫 해에 어머니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음 해의 부모와 자녀 간에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감소시키고 아이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며 이는 결국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 했을 때 학습준비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자녀의 적절한 학습준비를 위해 어머니와 자녀가 충분히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함께할 필요가 있으며, 어머니의 애정어린 양육방식이 요구되고 또한 이른 시기부터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직·간접적으로 아동의 학습준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명된 만큼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취학 전 아동의 학습준비를 위하여 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별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예컨대, 초등학교 취학이 얼마 남지 않은 자녀를 둔 어머니는 자녀와 가깝게 지내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아이를 애정 어린 훈육방식으로 양육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는 반면 취학하기 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는 양육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더욱 중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결국 자녀가 적절한 학습태도를 습득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자녀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낌없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학업 관련 변인에 대해 탐색한 대부분의 연구는 횡단연구로 단편적인 인과관계만을 확인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여 아동의 학업준비에 이르는 양상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취학 전 아동의 학습준비도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다루는 일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아동의 학습준비를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동의 학습을 위해 아동을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략이 아닌 아동의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국내 아동의 학업을 위한 교육적 지원과 대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증연구에서 문제될 수 있는 표본의 대표성 및 이에 따른 일반화 가능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관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종단 자료임에도 비교적 많은 사례를 확보하였으나 이를 국내 전체의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더욱 많은 표본을 활용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자료수집 방법으로 인터뷰 등과 같은 질적조사도 병행한다면 보다 심도있는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버지의 자녀 양육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는 만큼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1] G. J. Duncan, C. J. Dowsett, A. Claessens, L. Magnuson, A. C. Huston, & P. Klebanov, "School readiness and later achievement", *Developmental Psychologist*, Vol.43, No.6, pp.1428-1446, 2007.
- [2] K. S. Chung, "The Relationship of Children's Achievement Motivation to Children's School Readiness",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Vol.10, No.2, pp.19-31, 1989.
- [3] P. Parker-Martin. Evaluating a district-wide kindergarten transition process for preschool children with special needs, The University of Arizona, 1999.
- [4] I. N. Jae, Child Research, Kyunggi-do:Yangseowon, 1993.
- [5] H. J. Park. *The Effects of Maternal Factors in Bipolar Income Groups on Preschool Children's Learning Readiness*, Master's thesis,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18.
- [6] S. J. Kim & K. J. Kwak, Exploring the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Related to the School Adjustment of Grade 1 and 2 according to Parental Income: Parenting Efficacy, Self Concepts, and Prosocial Behavior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19, pp.85-105, 2012.
- [7] G. W. Ladd, S. H. Birch, & E. S. Buhs, Children's social and scholastic lives in kindergarten: Related spheres of influence?. *Child development*, Vol.70, No.6, pp.1373-1400, 1999.
- [8] D. R. Entwisle, K. L. Alexander & L. S. Olson, First grade and educational attainment by age 22: A new st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110, No.5, pp.1458-1502, 2005.
- [9] K. M. Rudasill, S. E. Rimm-Kaufman, L. M. Justice, & K. Pence, Temperament and language skills as predictors of teacher-child relationship quality in preschool,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Vol.17, No.2, pp.271-291, 2006.
- [10] S. Vaughn, A. Hogan, G. Lancelotta, S. Shapiro, S. & J. Walker, Subgroups of children with severe and mild behavior problems: Social competence and reading achievemen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21, No.2, pp.98-106, 1992.
- [11] J. J. Lim, Y. J. Kim, S. W. Cho & S. H. Ahn, "Differences in Their Children's School Readiness by Mothers' Play Participation Levels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 Mother",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19, No.4, pp.295-319, 2012.
- [12] J. A. Le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interaction, and young child's prosocial behavior and empathetic ability: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f empathetic ability,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ociety*, Vol.38, No.4, pp.5-23, 2018.
DOI: <http://dx.doi.org/10.18023/kiece.2018.38.4.001>
- [13] S. J. Kwan, K. Y. Lee. Effects of Parent-child Interaction and Caregiving Supports on the School Readiness of Preschoolers: Focusing on Working Mothers' Job Characteristics, *Journal of Childcare Policy Research*, Vol.12, No.2, pp.57-81, 2018.
DOI: <https://doi.org/10.5718/kcep.2018.12.2.57>
- [14] P. S. Chul, *Relation among self, situation, and behavior of the internet community users : from the viewpoint of symbolic interaction*, Ph.D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2005.
- [15] H. J. Jeon, Peterson, C. A., & DeCoster, J. "Parent-child interaction, task-oriented regulation, and cognitive development in toddlers facing developmental risk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4, No.6, pp.257-267, 2013.
- [16] A. Hsin and C. Felfe, When does time matter? Maternal employment, children's time with parents, and child development. *Demography*, Vol.51 No.5, pp.1867-1894, 2014.
- [17] J. H. Lee, I. K. Cho. The influence of parent-child interaction on the school readiness of their childre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co-parenting, *The Journal of Play Therapy*, Vol.23, No.1, pp.15-30, 2019.
- [18] W. C. Becker,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1, No.9, pp.169-208, 1964.
- [19] W. S. Jung, Modern Educational Psychology, Seoul: Education Publisher, 1990.
- [20] H. O. Park,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Special-Purpose High School Students on Their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Special and gifted education journal*, Vol.4, No.2, pp.125-147, 2017.

- [21] M. R. Lee, The influence of mother's rearing attitude and communication between mother and child on young children's self-directed learning, *Journal of Creativity Research*, Vol.3, No.1, pp.139-160, 2013.
- [22] S. J. Lee, "Relationship of Parental Attitude to Career Maturity :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2011.
- [23] S. H. J. Park, S. M. Song, & Y. H. Lee, The Influence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Poverty and Comparative Groups,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Vol.22, No.3, pp.407-416, 2011.
- [24] W. Kim, E. A. Park & S. M. Chun..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on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and Self-Directed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Therapy Research*, Vol.8, No.2, pp.123-142, 2016.
- [25] M. J. Doh, J. H.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ren's school readiness and their mothers' parenting attitudes in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Vol.15, No.3, pp.31-48, 2011.
- [26] R. Abidin,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19, No.4, pp.298-301, 1990.
- [27] M. L. Kim, Y. J. Lee & J. H. Le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Stress and Leisure Constrains of Parents who have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9, No.1, pp.366-375, 2009.
- [28] J. S. Yoon, "Relationship between 5-years-old Children's School Readiness,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Expectation of Children's School Adaptation",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2016.
- [29] J. S. Yoon, M. H. Lee & Y. M. Lee, The Effect of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Expectation of Child's School Adaptation on School Readiness as for their Child's Gender, *Journal of Children's media research*, Vol. 16, No.1 pp.131-155, 2017.
DOI: <http://dx.doi.org/10.21183/kjcm.2017.03.16.1.131>
- [30] Y. H. Song,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s on School Readiness for Preschool Children",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2018.
- [31] E. H. Kong,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aring Outcome Expectation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Economic Capability of Mothers of Disabled Children as well as Social Support and their Child-rearing Stress",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2011.
- [32] J. A. Kim,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School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in Adolescents on the Parenting attitud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7, No.2, pp.303-326, 2016.
- [33] K. J. Park, Y. H. Kwon, Maternal Behavior during Mother - Child Problem Solving : Effects of Marital Satisfaction , Parenting Stress , and Attachment Securit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23, No.4, pp.53-70, 2002.
- [34] Abidin, R. R. (1995). Parenting stress index professional manual, 3r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35] Calikins, S. D., Hungerford, A., & Dedmon, S. E. (2004). Mothers' interactions with temperamentally frustrated infant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5, 219-239.
- [36] E. K. Ko, Parenting stress is a mediator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lue of having children among parents, spousal child care, and family interaction of mothers and fathers, *Journal of cognitive Enhancement and Intervention*, Vol.8, No.3, pp.1-18, 2017.
- [37] Y. M. Kim, & H. N. Song. "The moderating effect of mother's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s of mothers with infants",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vol. 9, no. 2, pp. 71-88, 2015.
- [38] Y. K. Moo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Infant Mother's Parenting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30, No.3, pp.165-177, 2012. .
DOI: <http://dx.doi.org/10.7466/JKHMA.2012.30.3.165>
- [39] J. M. Kim, J. W. Han, The Actor Effect and the Partner Effect of Value of Children and Parenting Stress on Parenting Attitude of Parents in Childhood: Analysis of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12, pp.437-445, 2016.
DOI: <http://dx.doi.org/10.5726/KAIS.2016.17.12.437>
- [40] K. H. Kim, H. K. Kang, Development of Parenting Stress Scale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35, No.5, pp.141-150, 1997.
- [41] E. J. Choi, E. H. Kim, The effects of family interaction, parent-child interaction, play interaction on child's problematic behavior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4, No.2, pp.1-21, 2019.
DOI: <http://dx.doi.org/10.20437/KOAECE24-2-01>
- [42] B. H. Cho, J. S. Lee, H. S. Lee & H. K. Kwon, Dimensions and Assessment of Korean Parenting Style,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37, No.10, pp.123-133, 1999.
- [43] D. A. Murphey, C. E. Burns,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community assessment of school readiness", *Early Childhood Research and Practice*, Vol.4, NO.2, pp.1-8, 2002.
- [44] R. B. Kline,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p.445, The Guilford publishers, 2015.

- [45] D. W. Russell, J. H. Kahn, R. Spoth & E. M. Altmaier,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45, No.1, pp.18-29, 1998.
- [46] Y. S. Seo, Testing Mediator and Moderator Effect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Conceptual Distinction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2, No.4, pp.1147-1168, 2010.
- [47] P. M. Bentler, D. G. Bonett,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Vol.88, No.3, pp.588-606, 1980.
- [48] L. R. Tucker, C. Lewis,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Vol.38, No.1, pp.1-10, 1973.
- [49] P. M. Bentler,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Vol.107, No.2, pp.238-246, 1990.
- [50] M. W. Browne & R. Cudeck,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Vol.21, No.2, pp.230-258, 1992.
DOI: <https://doi.org/10.1177/0049124192021002005>
- [51] J. F. Hair, R. E. Anderson, R. L. Tatham & W. C. Black, Multivariate data analysis, New Jersey, Pearson Education, 1998.
- [52] H. R. Yoon, S. J. Ahn & S. H. Kim,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perceived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the Peer Relationship, *Korean Journal of East West Mind Science Association*, Vol.20, No.1, pp.33-45, 2017.
- [53] H. J. Jang, H. J. Bang & O. Jung, The Influence of Maternal Belief about Corporal Punishment and Parenting Stress on Child Adjustment Problems mediated by Corporal Punishment -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18, No.3, pp.143-163, 2005.
- [54] H. J. Jeon, S. K. Cho, M. J. Kim & H. J. Choi, Belief in the value of children's father, grow, influence parenting participation on the infants development characteristics change facto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5, pp.2678-2688,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5.2678>

김 영 미(Yeoung-Mi Kim)

[정회원]



- 2007년 2월 : 동아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15년 2월 : 신라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 2018년 2월 : 동아대학교 대학원 영유아교육학 박사

<관심분야>

교육, 아동, 청소년복지, 심리상담